



# 공공도서관과 시민 인문학



우응순

인문학자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기획위원

diet3@hanmail.net

2013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이하 '길 위의 인문학')에 대한 최종 평가는?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121개 공공도서관의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교육방송에서 방송한 '길 위의 인문학' 다큐 3부작(2013. 11. 19. - 11. 21.)이 좋은 반응을 받으면서, 이 사업의 앞날은 더욱 밝아졌다. 이는 주제 설정, 기획안 작성, 강사 섭외와 진행의 전 과정을 전담한 담당자들의 노고와 열성이 이룬 귀한 성과이다. 이 시점에서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인문학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 수준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미래와 결부하여 성찰해야 한다. 이 글은 정부지원금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의 고유자산으로 축적하자는 취지에서 쓴 것이다.

## 시민인문학의 구심점

2014년 '길 위의 인문학'은 전국 180개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 것은 지난해의 성공에 힘입은 바 크다. 공공도서관이 시민 인문학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아 나가는 현 시점이야말로 공공도서관과 인문학의 만남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공공도서관에서 시민교육,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지는 오래되었지만 '길 위의 인문학'이란 이름으로 도서관과 인문학이 만난 지는 작년부터이다. 사회의 긍정적 시선과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지금이 이 사업을 한 단계 향상시켜 공공도서관 시민인문학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시킬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다. 양질의 시민인문학 콘텐츠 구축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자 제안하는 바이다.

## 공공도서관의 내적 위기

현재 공공도서관의 미래는 탄탄대로처럼 보인다. 지자체 장들의 공공

도서관 설립 공약은 계속 될 것이고, 조만간 1,000개를 넘어설 것이다. 지자체 장의 입장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역민들의 호응도를 얻어내기 쉬운 공약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건물만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운영비에 인색하기 때문에 화려한 개관식 다음 날부터 도서관은 ‘물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린다. 당연히 공공도서관 근무자들의 미래는 어둡고 춥다. 공공도서관의 내적 위기는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온다.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최소한의 인력만을 - 그것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원봉사자, 공익요원으로 채우기를 강요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공공독서실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외화 내빈의 현실, 공공도서관의 내적 위기이다.

열악한 근무조건, 답답하기만 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내면의 부정적 생각을 바꾸고, 나를 시작으로 직장의 조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위상을 재배치해 나가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예상외로 간단하다. 투표권이 있고 세금을 내는 시민들과 공감하면 된다. 시민들의 일상의 삶에서 공공도서관이 얼마나 귀중한 곳이며, 그 곳에 근무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는가를 자연스럽게 알게 하면 된다.

현 단계에서는 ‘길 위의 인문학’이 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1세기 시민사회에서 인문 교양은 일상적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인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다. 왜? 여러 유형의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3만여 년 전에 형성된 현생인류의 지적 능력, 마음의 구조는 근원적으로 생존을 위한 공감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자아의 존재성을 성찰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편화된 조각난 세계에서 고립된 인간은 괴물, 기계인간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은 타자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된다. 21세기를 사는 인간, 시민, 가족이 필요로 하는 곳은? 삶의 지킴서, 안내지도가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이다. 다른 그 어떤 곳이 공공도서관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 대학인문학의 위기

근래에 대학 안에서 좀처럼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던 고답적 대학인문학이 밖으로 나와 공공도서관, 박물관에서 시민과 만나게 된 것은 정부의 지원 사업의 성과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2010년 시작), ‘석학인문강좌’(2007년 시작) 등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문학 강좌가 대중적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했으며, 감옥의 수감자, 군 탈영자,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도 그 특이성으로 매체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반해 대학의 인문학 관련학과, 관련 연구소의 상황은 악화일로이다.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하고(1997년 인문학 제주 선언)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인문학 지원 방안이 마련 된지 15년이 지났지만, 대학의 인문학은 매년 위축되고 있다. 인문학 전공자들 사이에서 ‘인문학의 수요는 증대했지만 인문학의 위상은 점점 약해졌다’는 탄식과 자성이 넘쳐난다. 대학 인문학의 축소와 우울한 전망에 대한 원인 분석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그 원인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타산지식으로 삼아야할 부분도 있다. 대학의 인문학은 매년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지원을 고정 상수로 삼았으며, 심지어 매년 그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내실없는 몸집 키우기에 열중했다.

그 결과 지원 액수에 따라 펼치는 텐트의 사이즈가 달라졌다. 텐트 안에 모인 비정규직 연구자들은 해당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다가, 텐트를 접게 되면 바로 흩어졌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연구자들의 생활은 불안정해지고 학문의 축적도 불가능해졌다. 정부의 지원 액수에 따라 이합집산을 되풀이 하면서 양질의 콘텐츠, 주도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참신한 에너지는 고갈되었다. 이는 당장 대학이 시민을 위한 인문학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학사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순발력을 생각한다면 조만간 대학은 시민 인문학의 최전선으로 나올 것이다. 대학이 도서관을 비롯한 학내의 우수한 제반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의 요구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막강한 경쟁 상대이자 귀중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 정부와 평생교육

정부의 문화정책은 시민의 평생교육을 지향한다. 시민의 교양, 공감, 협동이 국가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길 위의 인문학’도 정부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유한적 사업으로 접근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주체를 정부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는 재정 지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 21세기 시민사회에서 문화정책에 관한 한 정부는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지만, 시행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이는 행정적 한계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 개개인이 놓인 삶의 근원적 조건 때문이다. 행복과 좋은 삶(good life)은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개인적, 일상적 차원이 되었으며,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거나 개입할 수 없게 되었다.

1970년대에 교육학에서 평생교육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마치 새로운 교육이론인 것처럼 강조했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하고도 어이없는 일이었다. 원래 인간의 일생은 가정, 마을, 사회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새삼스럽게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1982년 「사회

교육법」이 제정되었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전문개정 되었다. 평생교육 진흥이 국가의 의무가 되면서 평생학습관이 설치, 운영되었고 평생교육사가 양성되었다. 현재 평생학습관에 공공도서관이 속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공공도서관의 장구한 역사를 거론할 것도 없이 1970, 80년대 경제 호황기에 한국사회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폭발했을 때에 공공도서관이 이미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전면에 나섰다던? 아마 공공도서관의 위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 공공도서관과 인문학의 만남

정부의 지원은 매년 달라지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 알 수도 없다.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솔직히 시민 인문학의 필요성이 강조될수록 현재 공공도서관이 선점하고 있는 위상은 흔들릴 수 있다. 대학 내의 인문학 연구소, 평생교육원과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이 때 공공도서관은 인문학의 대중화를 전면에서 주도할 수 있을까? 당분간은 대학, 박물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 단계에서는 관련 기관과 협력한다 하더라도 장소를 빌려주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나 대학의 인문학은 그 기본 속성상 폐쇄적이다. 공공도서관에 와서 다양한 보따리를 풀기는 하겠지만 공유하는 것 없이 그대로 다시 싸가지고 갈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다.

### 공공도서관을 인생학교로

공공도서관에서 양질의 시민 인문학을 주도적으로 지속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공공도서관이 대학 인문학과 차별되는 시민 인문학 콘텐츠를 풍부하게 축적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그들의 요구를 건인해 내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진행된다면 공공도서관에 최적화된 시민 인문학 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학 인문학과 공공도서관의 시민 인문학은 서로 협력하여 상생의 에너지를 확산시켜야 한다. 어느 부분에서 경쟁구도로 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학보다는 공공도서관에 더 승산이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학교는 졸업한 후에는 찾아가기 부담스러운 곳이다. 좋은 기억보다는 이런저런 우울한 기억이 새겨져 있는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학습하는 것은 즐겁지 않다. 이에 비해 공공도서관은 구속의 기억이 없는 자발적 만남의 장소이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가 학력, 빈부 등 삶의 흔적을 지우고 같은 공간에



서 모여 공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공공도서관 밖에는 없다.

공공도서관을 인생학교로 모델링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다. 우선, 중심에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공공도서관 관련 기구에서 여러 유형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각 도서관의 담당자들이 기획전문가, 인문학 강좌의 달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전국적으로 일정한 주제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도 있다. 일 예로 ‘근대와 도시’를 주제로 설정한다면, 인천, 부산, 군산, 목포의 도서관들이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 체험’을 주제로 한다면 하회, 전주 등 한옥마을이 있는 지역의 도서관들이 모여 이와 관련된 공통 강좌와 개별 강좌를 구성할 수 있다. 강좌 기획자, 강연 경험자, 참가자들이 상호 소통하면서 요구와 체험을 축적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공공도서관에 적합한 시민 인문학 콘텐츠를 구축하고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장 경험을 통한 콘텐츠 구축이야말로 공공도서관 만이 할 수 있는 특이성이다.

### 2014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2013년 ‘길 위의 인문학’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문화, 지리적 특성을 살린 것으로 강연, 탐방의 연계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유익함과 즐거움을 같이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변형해 가면서 고정 프로그램으로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형식의 품격있는 프로그램이 창안되고 시도되어야 한다. 우선 강연 - 탐방 형식과 아울러 저녁이나 주말 강의, 하나의 주제, 책 한권을 대상으로 한 4회 이상의 세미나, 지역 독서모임과 연계, 박물관, 문학관, 문화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길 위의 인문학’이 현재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속 프로그램과 결합한다면, 예상외의 상승효과가 나올 것이다.

현재 산발적, 분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길 위의 인문학’이 내적 심화, 경험의 축적, 재생산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도서관 담당자들의 항시적 소통, 모임이다. 어느 지역, 어느 도서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면 담당자의 업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장기적 안목으로 시민 인문학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기획자들의 정기적 세미나, 토론 모임이 지역단위로, 전국단위로 진행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담당자들이 지치지 않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 참고로 남산강학원, 푸른역사 아카데미, 문탁네트워크 등에서 무거운 인문학 강좌가 정부의 지원 없이 성

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충전 없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면, 공공도서관의 내적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길 위의 인문학’의 주체가 되어달라는 이러한 제안은 도서관 담당자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공공도서관의 위상과 관련하여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위상과 여러분의 미래는 공동운명체이다. 현 단계에서는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서 공공도서관이 인생학교, 평생학교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지원 액수에 따라 사업을 더 하고 덜 하는 수동적 입장에 머무른다면 공공도서관은 지역커뮤니티 내에서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계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자발적 의지가 필요하다. 전자도서관이 확장되고 손 안에 고급정보가 쥐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생적 에너지를 키우지 못할 경우 미래의 공공도서관의 위상은 기대만큼 확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공도서관은 위기를 선언한 적도 없지만, 선언할 필요가 없길 바란다. 위기 선언은 대부분의 경우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공공도서관의 시민 인문학, 그 전망은 희망적이며 기대효과는 무궁무진하다! 🎯